따뜻하고 맛있는 스위스의 겨울.

추운 건 싫은 여행자들을 위한 따뜻하고 맛있는 스위스 체험

셰프와 파티쉐, 초컬릿 마스터의 주방 엿보기
칵테일 클래스와 커피의 세계 탐험도
100 년 역사 넘는 수공 도자기 공방, 비스킷 제조, 로프 제조의 현장도
로컬들도 연인끼리, 가족끼리 특별하게 찾는 체험들

스키와 보드를 비롯한 겨울 스포츠 강국인 스위스답게, 겨울이면 의례 스노우 스포츠를 떠올리게 하는 스위스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스위스 도시와 마을에는 로컬들의 데이트 코스로, 혹은 가족 단위 체험 코스로, 관광객들의 특별한 로컬 체험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로컬들에게도 인기있는 따뜻하고 맛있는 스위스 겨울 체험을 소개한다. 단,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반드시 예약을 필수로 하므로, 사전에 잘 준비해야 한다.

1. 체르마트(Zermatt)의 키친 엿보기(Kitchen Around)
다른 각도에서 미식 체험을 즐겨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체르마트의 선별된 레스토랑의 심장부, 바로 키친에서 다이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지글대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셰프의 어깨 너머로 레스토랑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엿볼 수 있다. 최대 4 명만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로컬 명물을 재료로 구성한 네 가지 메뉴를 맛볼 수 있다. 4 코스 식사는 네 잔의 로컬 와인과 매칭되어 서빙되고, 커피와 식후 주가 제공된다. 숙소까지 택시 서비스와 깜짝 선물도 제공된다.
참가비: CHF 189
예약: welcome@4478events.ch

2. 루체른(Luzern)의 막스 쇼콜라티에(Max Chocolatier)
막스 쇼콜라티에는 달콤한 동화 세상같다. 1-2 시간 소요되는 투어를 통해 루체른에 있는 초컬릿 아틀리에를 방문하면 시즈널 제품들을 시식할 수 있다. 이 작은 초컬릿 공방에서는 100% 천연 재료와 근방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해 초컬릿 트러플과 스페셜리티를 만들고 있다. 초컬릿 장인이 작업하는 명장면을 지켜볼 수 있으며, 투어를 통해 이 초컬릿 천국에 대한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참가비: CHF 100 부터
예약: events@maxchocolatier.com

3. 로잔(Lausanne)의 칵테일 클래스
로잔에 위치한 5 성급 호텔, 보리바주(Beau-Rivage)에 있는 세련된 호텔 바 너머에 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인터네셔널한 칵테일 종류를 고루 갖추고 있어 유명한 이 바에서, 칵테일 클래스에 참가해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이 곳에서 직접 만든 특별한 재료와 로컬 재료를 이용해 깜짝 놀랄만큼 맛 좋은 나만의 칵테일을 제조해 볼 수 있다.
참가비: CHF 150 부터
예약: bar@brp.ch

4. 벡기스(Weggis)의 미식 키친 사파리(Gourmet Kitchen Safari)
루체른 호반의 마을, 벡기스는 루체른의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찾는 리조트 호텔들로 유명하다. 벡기스에 있는 파크 벡기스 리조트(Park Weggis Resort)의 미식 키친에서 반일 동안 맛있는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셰프가 요리하는 장면을 직접 구경할 수 있고, 각각의 요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눈 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다.
참가비: CHF 185 부터
예약: info@phw.ch

5. 에멘탈(Emmental)의 졸브뤽(Zollbrück) 베이커리
이 에멘탈 베이커리의 견학에서 무척 진기하고도 맛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베이커들이 빵을 반죽하고 굽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빵 뿐만 아니라, 페이스트리와 초컬릿도 만들고 있어, 전 과정이 끝난 뒤에 시식도 즐길 수 있다. 풍성한 선데이 브랙퍼스트 뷔페는 로컬들에게도 큰 인기다. 로컬들은 이 곳에서 아침 식사를 즐긴 뒤, 엠메(Emme) 강을 따라 거닐거나, 에멘탈 지역의 평온한 구릉지대로 하이킹을 떠난다.
선데이 브런치 요금: 성인 CHF 27, 만 7-12 세 아동 CHF 1, 만 6 세 이하 아동은 한 살 당 CHF 1
예약: www.baeckerforum.ch

6. 졸로투른(Solothurn)의 유라커피월드(JURAworld of Coffee)
커피의 나라를 찾은만큼, 커피세상으로 여정을 떠나 보아도 좋다. 우리 나라에도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유명해진 유라(Jura)가 운영하는 커피 견학 코스다.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커피향 가득한 공간에서 배워볼 수 있다. 입장료에는 클래식 커피 한 잔과 홈메이드 브레첼리(Bräzeli)가 포함되어 있다. 커피 라운지에서는 다양한 에스프레소 베이스 커피와 퓨어 오리진 커피, 알코올이 첨가된 커피도 맛볼 수 있다. 물론, 집으로 가져갈 훌륭한 원두도 판매한다. 루체른과 베른에서도 기차로 1 시간여로 가깝다.
입장료: 성인 CHF 9, 만 15 세 이하 아동 무료
홈페이지: www.juraworld.com

7. 트룹샤헨(Trubschachen)의 전통과 혁신 투어
치즈 농가로 유명한 에멘탈(Emmental) 지역의 트룹샤헨 마을에서는 전통과 혁신을 넘나드는 퓨전 투어에 참가할 수 있다. 스위스의 전통과 역사를 갖춘 혁신적인 회사 세 곳을 방문하는 투어다. 투어는 먼저 캄블리(Kambly)로 시작된다. 스위스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인기 높은 비스킷 회사로, 모든 감각을 동원해 비스킷 제조의 비밀을 살펴볼 수 있다. 심지어 100 종이 넘는 비스킷을 시식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캄블리 카페에서는 초컬릿 마이스터들의 작업 현장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찾는 야콥(Jakob)은 11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로프 제조업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터랙티브한 로프트레일을 체험해볼 수 있다. 세 번째 회사는 도르프퇩페라이 애비(Dorftöpferei Aebi)다. 스위스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오래된 도자기 업체로, 도자기 장인들의 작업 현장을 지켜볼 수 있다. 애비 자기는 한 점 한 점 모두 수공 작업을 거쳐, 똑같은 제품이 있을 수 없다.
입장료: 세 업체 모두 무료
예약 및 문의: 각 홈페이지 참조(www.kambly.ch I www.jakob.com I www.aebi-keramik.ch)

8. 바덴(Baden)의 라운지 아페리티프
취리히에서 가까운 바덴에 있는 호텔 린데(Hotel Linde)에 위치한 베이커리 라운지에 앉아 아페리티프 한 잔을 즐기며 파티쉐가 정성스런 작업 현장을 엿볼 수 있다. 갓 구워낸 빵과 페이스트리의 구수하고 달콤한 향내가 끊이지 않는다. 운이 좋다면 이 곳의 명물 페이스트리,
"슈파니쉬브뢰들리(Spanischbrödli)"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www.linde-baden.ch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